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¹⁾

김희진 연구위원

개요

- 조사목적**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기반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영역에 대해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 9,008명의 청소년
- ▶ 남자 4,686명(52%), 여자 4,322명(48%), 초등학생 2,603명(28.9%), 중학생 2,908명(32.3%), 고등학생 3,498명(38.8%)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기간** ▶ 2017년 5월~7월

1) 본 블루노트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연구과제인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보고서의 일부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1 참여권 보장 및 참여 저해 요인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60.7%의 응답자가 '그렇다'(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 남학생(61.7%)이 여학생(59.6%)보다, 응답자의 학교급이 낮을수록(고: 46.6% → 중: 59.6% → 초: 81.0%), 지역규모가 클수록(읍면지역: 58.8% → 중소도시: 60.6% → 대도시: 61.5%)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가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움(26.9%), 참여활동 정보 부족(18.6%), 참여할 기회나 방법 부족(12.3%), 부모님(보호자)의 반대(2.2%), 학교의 반대(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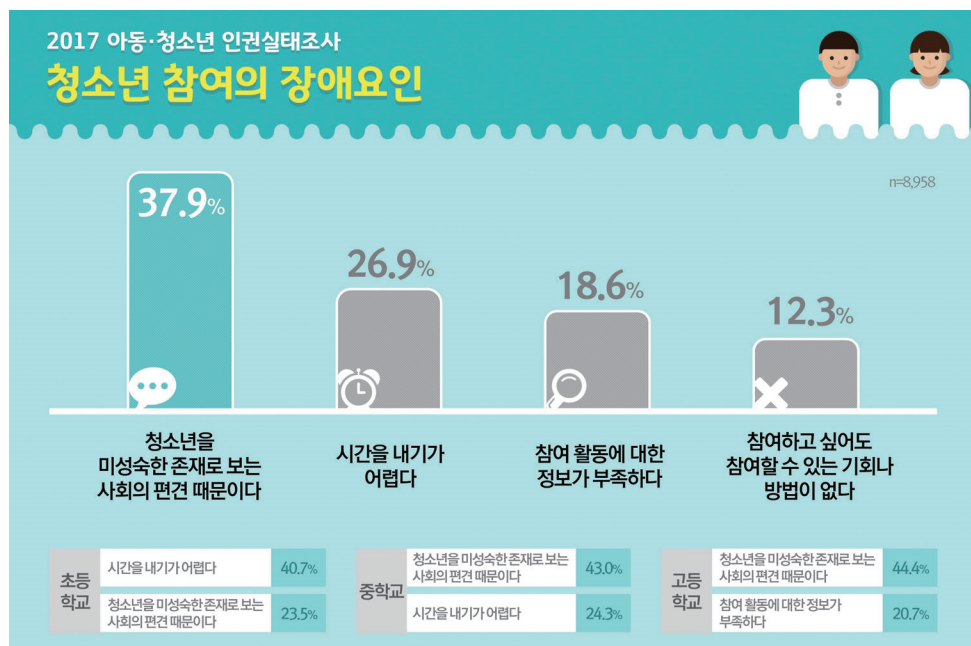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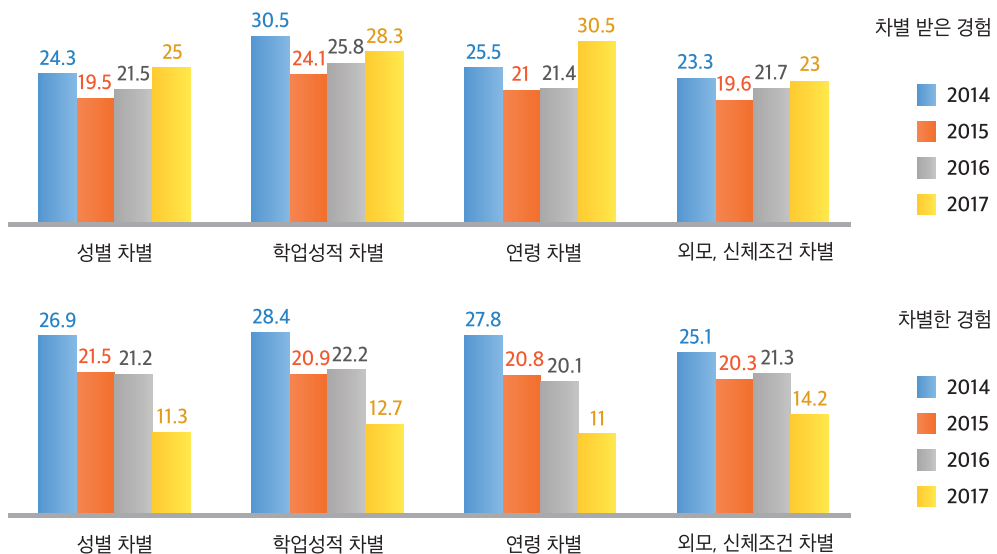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2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한 경험

-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은 경험을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1년에 1회 이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나 여러 차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28.3%)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25%), 외모 및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23.0%) 등의 순으로 차별 받은 경험이 높게 나타남.
- 1년에 1회 이상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14.2%로 가장 많았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12.7%,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 11.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11.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각 유형별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에 감소했다가 2017년에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차별한 경험 비율은 시간경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주: 1년에 1회 이상 경험 기준

그림 2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한 경험의 연도별 추이(%)

3 부모·교사로부터의 신체적·정서적 폭력 경험

- 최근 1년 동안 부모(또는 보호자)나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1년에 1회 이상을 기준으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인 벌은 응답자의 26.2%가, 교사로부터의 신체적 벌은 15.6%가 경험했다고 응답함.
 - 부모로부터의 체벌은 교급이 낮을수록(고: 16.1% → 중: 30.3% → 초: 35.6%), 교사로부터의 체벌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남(초: 7.6%, 중: 19.7%, 고: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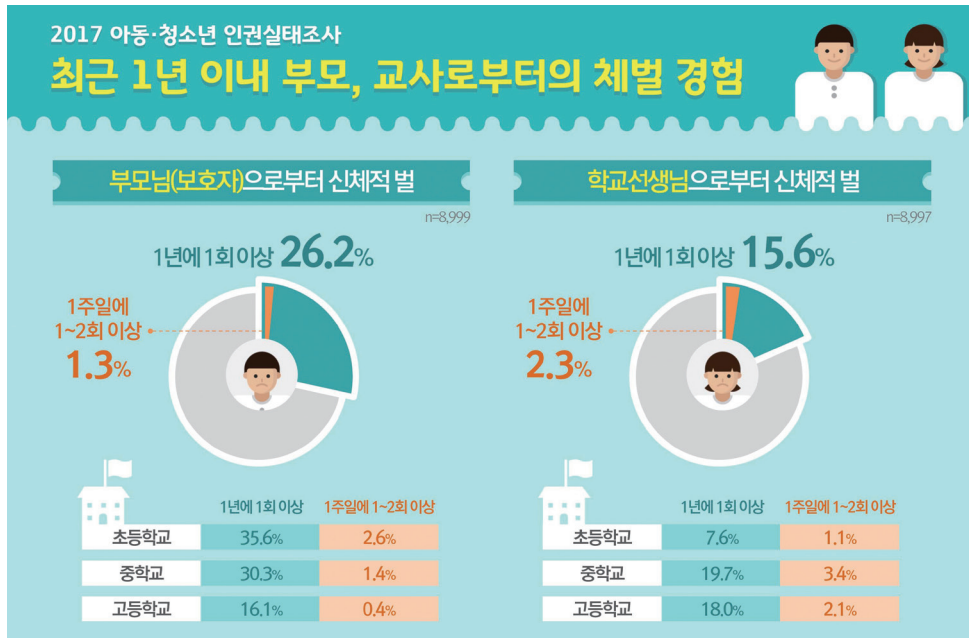


그림 3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 최근 1년 동안 부모(또는 보호자)나 교사로부터 무시나 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1년에 1회 이상을 기준으로 부모로부터는 응답자의 31.9%, 교사로부터는 20.6%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로부터의 무시나 욕설의 경우 중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초: 26.6%, 중: 37.4%, 고: 30.9%), 교사로부터의 무시나 욕설에 대해 초등학생은 7.5%,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대략 26%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 신체적인 체벌과 달리 교급에 따른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음.

4 아동·청소년의 운동실천 정도

■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의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회 이상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비율은 55.7%로 절반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23%, 즉 아동·청소년의 약 1/4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남학생은 15.3%, 여학생은 31.3%로 나타나 여학생의 운동실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초등학교는 74.2%, 중학교 54.3%, 고등학교 43.2%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하는 비율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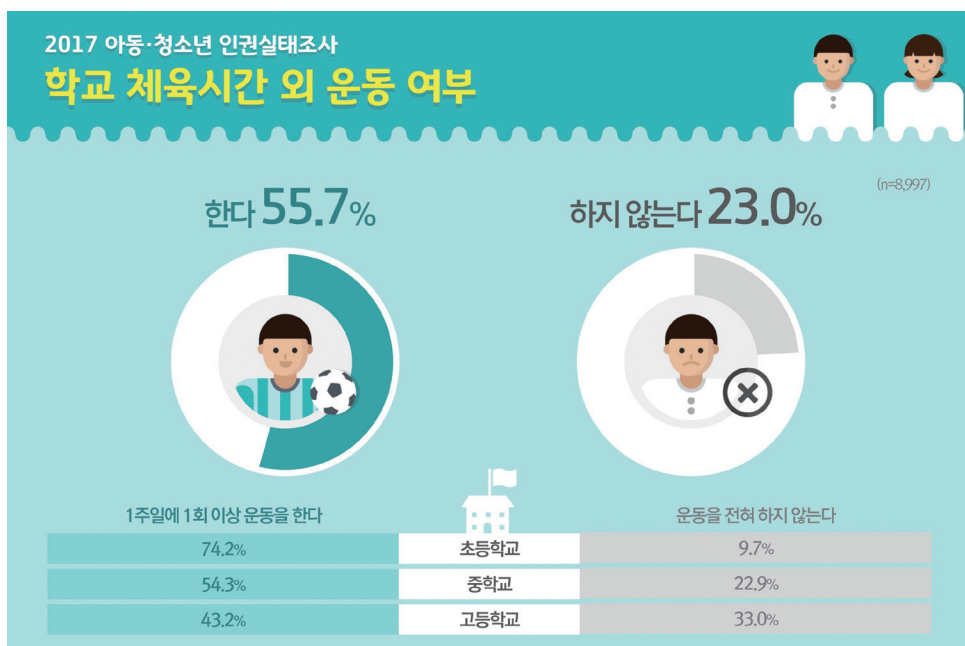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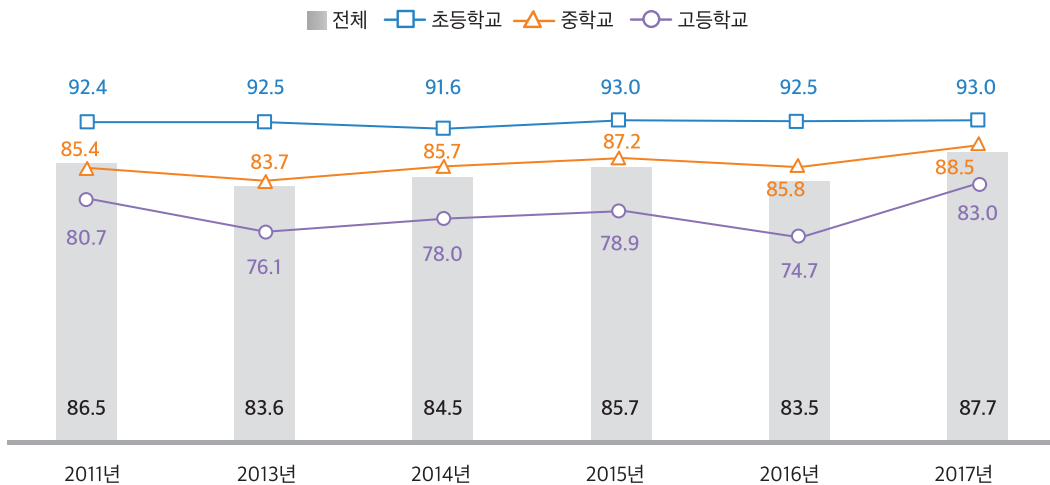


그림 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 정도(%)

5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응답(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비율이 전체 87.7%로 높게 나타나 아동·청소년 응답자 대다수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긍정적 응답 기준으로 남학생이 88.6%, 여학생이 86.7%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남(초: 93% → 중: 88.5% → 고: 83%).
- 신체적 건강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에 긍정적 응답률이 83.6%를 보인 이후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음.



* 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응답률 합계

그림 5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도별 추이(%)

6 아동·청소년들의 우울정도

■ 아동·청소년들의 우울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친 비율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1/3정도가 불안감이나 우울감 등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33.4%였으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28.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32.3%로 나타남.
- 세 항목을 합친 우울 정도에 대한 평균값은 4점 만점에 전체 1.90점이었고, 남학생의 평균값은 1.68점, 여학생은 2.15점으로 여학생의 우울 정도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우울정도의 평균값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초: 1.52점, 중: 1.97점, 고: 2.1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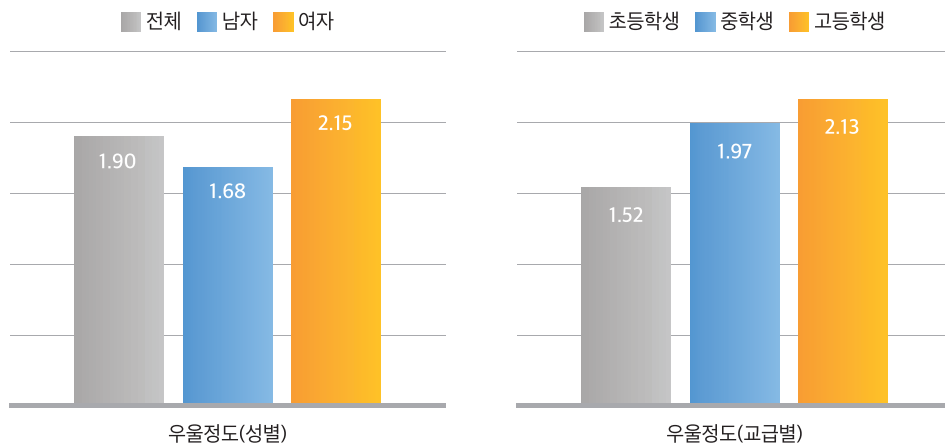


그림 6 우울정도에 대한 성별과 교급별 비교(평균값)

7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33.4%로 나타났다.
 - 남학생이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인데 비해 여학생은 42.9%로 약 18%p 정도 더 높게 나타나 앞에 제시된 여학생의 우울정도가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더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 학업문제가 40.1%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21.1%), 가족 간의 갈등(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고급별로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업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그 다음으로 중학생은 가족 간 갈등(중: 24.6%, 고: 13.5%)을, 고등학생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중: 13.7%, 고: 26.9%)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여 연령이 증가하면서 진로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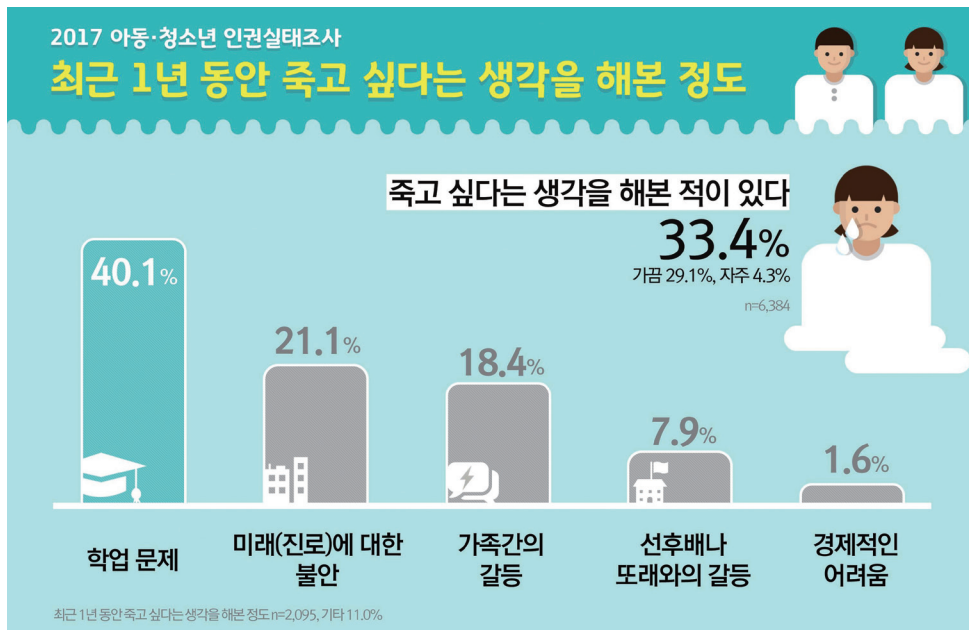


그림 7 죽고 싶다는 생각 유무 및 이유(%)